

## 2024학년도 해외문화탐방팀(산티아고순례)

연번	팀명	주제	순례길 일정	산티아고 순례길 명
1	똑똑한 청년들.	삶에 대한 고찰과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여정	2024.06.26-08.06	은의 길
2	교환일기	주역의 연합	2024.07.05-07.22	프랑스길
3	한 발짝 두 발짝 산티아고 Let's Go!	글로벌 역량을 위한 국제학부 코로나 학번들의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	2024.07.13-07.27	프랑스길
4	응답하라 2019	과거의 반성, 현재의 도전, 미래의 비전: 2019년 회기를 통한 자아성찰과 글로벌 취업 역량의 성장*	2024.07.08-07.12	프리미티보길
5	작심 3주 (3주 동안 굳은 다짐으로 완주해보자!)	1. 걷는 것로부터 각자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행록 2. 나를 찾기, 우리를 찾기, 산티아고를 찾기, 그리고 세계를 찾기(이해하기) 3.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유럽의 전통, 역사, 예술, 문화를 직접 접하고 느껴보기	2024.08.05-08.13	포르투갈길
6	갈래	1. 나의 여행, 나의 휴식: 내가 찾는 나의 가치 2. 길 위에서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배우다	2024.07.01-07.07	프랑스길
7	산티안나고	나를 향해 나아가는 길 : 우리의 여정	2024.07.06-07.13	포르투갈길
8	강한 국사	강한 국사, 중세의 발자취를 따라	2024.08.02-08.14	프랑스길
9	나찾길 (나를 찾는 순례길)	나를 찾는 대학 가톨릭대학교에서 만난 인연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걸으며 순례길에서 나를 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팀	2024.07.24-07.29	프랑스길
10	어쩌다 공소	순례길에서 의미를 찾고, 스페인 건축의 예술을 감상하다.	2024.06.29-07.09	프랑스길
11	아고보의 세 아들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순례 여정과 젊은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 목표 달성 및 성취, 인생의 순례 여정을 통한 신앙적 성숙과 자기 발전을 통하여 한번뿐인 대학생살에서 얻어가는 보석같은 경험들을 위한 여행	2024.07.04-07.09	포르투갈길
12	Journey Walker	고급 위스키의 브랜드 "조니워커"에서 차용한 "Journey Walker"라는 팀명은 직역하자면, "여행길을 걷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때문에 표면적인 의미에서 순례길 활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면적인 의미로는,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쳐 고급진 맛을 내는 위스키처럼 이번 순례길 탐방이란 숙성 과정을 통해 더욱 발전하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2024.07.25-07.30	프랑스길
13	까봉따봉-까봉가봉	: '까리따스(Caritas)' 사랑을 가장 낮은 곳으로 전하는 가톨릭대학교 까리따스 봉사단 소속으로 유대를 쌓아 온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장하고자 한다. 국내를 넘어 함께 순례길을 걸으며 각자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해외에서의 동고동락을 통해 더욱 우정이 진해지는 것을 기대한다.	2024.07.25-08.08	포르투갈 해안길
14	까봉따봉 - 까봉나봉	: '까리따스(Caritas)' 사랑을 가장 낮은 곳으로 전하는 가톨릭대학교 까리따스 봉사단 소속으로 유대를 쌓아 온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장하고자 한다. 국내를 넘어 함께 순례길을 걸으며 각자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해외에서의 동고동락을 통해 더욱 우정이 진해지는 것을 기대한다.	2024.08.04-08.09	프랑스길
15	백백(Back은 없다, 패기로 !)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6명의 열정과 의지의 산티아고 탐방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패기있게 도전한다.	2024.06.27-07.03	프랑스길
16	carpe diem	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가에 나오는 구절인 카르페디엠에서 따왔다. 전정으로 지친 로마 시인을 위로하는 말인 이 구절은 현재 학업, 취업 등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은 우리를 또한 잠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삶에 도전하면서 현재를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러한 팀명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다국적 사람들의 삶을 엿보으로써 동양권 문화에서 정반대인 스페인 문화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현재를 즐기자는 게 우리의 주제이다.	2024.07.13-07.18	프랑스길
17	¡Buenos dias!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아침을 맞이하며 외친다 "¡Buenos dias!"	2024.07.11-07.17	프랑스길
18	기지에 박수를	"용기를 잃어버린 겁쟁이들의 발악"; 스페인-포르투갈 정지 순례 1) 다윗과 골리앗: 본격적인 사회진출을 앞두고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지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에서의 성취(115km 구간 완주) 경험을 통해 다윗의 용기와 겸손을 배우고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포르투갈의 성당들은 외벽이 '아줄레주(타일 장식)' 벽화들을 꾸며져 유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성당들의 외관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르투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총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와의 이동이 용이하며 다양한 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순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06.26-07.01	프랑스길
19	Noah(노아)	새로운 시작과 함께하는 모험	2024.06.25-07.09	포르투갈길
20	7월의 청춘 in 산티아고	학과부터 다르고, 살아온 환경, 산티아고에 가고 싶은 동기부여가 다른 4명이 모여서 그리는 한계 극복 여행기. 그들은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다. 24살에 두 번째 신입생이 된 이세빈, 코로나 학번이라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김민서, 3학년이지만 진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홍지우, 꿈을 이루기위해 가톨릭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편입생 양승희는 어떤 유쾌하고 발랄한 산티아고 여행기를 보내게 될까?	2024.07.04-07.09	프랑스길
21	고홍순 (Go! 흥보대사 순례길 탐방!)	흥보대사들이 직접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행운을 주고받는 모습을 담백하게 촬영하여 가톨릭대학교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2024.07.31-08.03	프랑스길
22	나를 찾아 떠나는 새내기과 졸업생	이제 막 입학한 24학년 새내기 2명과 이제 곧 졸업하는 20학년 선배가 만나 나를 찾아간다는 공통점으로 순례길을 떠난다.	2027.07.24-07.29	프랑스길
23	비빔밥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들처럼 고유한 각자의 모습과 성격을 가진 7명의 가대인이 한 곳에 어우러져 다양한 품의 맛을 낸다.	팀1 2024.06.26- 팀2 2024.08.07-	프랑스길
24	블루밍 플로워즈(Blooming Flowers)	순례길을 걷는 것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앞을 향해 걷는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길을 걷는 친구들과 의지해가면서 끝까지 도달하는 성취감과 인내력을 키웁니다. 또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역사적, 종교적 유산을 경험해 볼 것이고, 나아가 추가적인 여행 일정 속에서 화려한 문화들을 느낄 것입니다.	2024.07.09-07.15	프랑스길